

# 광주불교계 “로고 걷고 전법 나서요”



## 광주불교聯 및 산하기관 단체 사용... 부처님과 보리수 상징

광주불교연합회와 빛고을나눔나무가 지역 불교단체로는 이례적으로 대표로고를 만들어 전법에 나선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지난 1월 14차 운영위원회를 통해 단체문패인 로고를 최종 확정하고, 향후 모든 대외문서에 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광주불교연합회 로고(사진)는 밤색계열의 보리수 잎 안에 부처님이 좌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보리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성수(聖樹)로 이번 로고에는 보리수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퍼지는 광배(光背)의 의미를 담았다. 로고는 2개 종류로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부설기관인 광주불교공동모금단체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혜공)의 로고(사진)는 나눔과 나무를 주제로 만들어 졌다. 나무는 지구에 있는 생명들에게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을 만드는 기초 생물이면서, 불교적으로는 '귀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출가와 재가를 상징하는 두 손으로 나눔나무를 공손이 받드는 모습을 구현해 내,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나눔활동을 펼칠 것을 서원으로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영배 광주불교연합회 홍보팀장은 “불교계 단체를 아우르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통합의 뜻을 지닌 로고를 제작했다. 불교·나눔단체 의미 쉽게 전해 통합의미로 다양한 행사서 활용 홈페이지도 마련해 자원봉사 접수

### 불교·나눔단체 의미 쉽게 전해 통합의미로 다양한 행사서 활용

### 홈페이지도 마련해 자원봉사 접수

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쉽게 불교단체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불교연합회는 “2월 중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불자들이 쉽게 광주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불교연합회와 빛고을나눔나무 2개의 홈페이지가 제작 중이며,

홈페이지에는 광주지역 불교계 소식과 봉축행사 안내 및 참가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 운영위원회와 회원 사람들의 참여공간이 만들어진다.

빛고을나눔나무 홈페이지는 단체와 사업소개, 나눔 참여방법, 후원소식 등의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2월 9일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동회 공모사업을 심사를 마치고 전체 2500만원 지원금을 확정했다.

빛고을관동회 공모사업은 광주지역 불교단체를 대상으로, 봉축행사를 권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금이다. 불교단체는 별도의 봉축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빛고을나눔나무에서 기업체와 사찰의 후원을 받아 재원을 조달한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17개 단체가 지원을 했다. 이들 단체에는 심사를 통해 최대 2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공모사업은 올해 3월부터 봉축기간인 5월까지 각 단체별로 진행되며,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사 후 상이 수여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아이들 사회 적응위해 노력할 것”

여수 청암사 지암 스님 광주소년원연합회장 취임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해온 여수 청암사 주지 지암 스님이 법무부 소년보호위원회 광주소년원연합회 회장으로 임명됐다.

고령정보산업학교(舊 광주소년원)는 2월 12일 본관청사에서 광주소년원연합회 회장 및 임원 취임식을 열었다.

지암 스님은 취임인사를 통해 “아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듬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보호위원들에게도 “시간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암 스님은 지난 2010년부터 광주소년원에서 명예부모 결연식과 멘토링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소년원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매월 음식지원, 봄·가을 소풍 나들이 활동을 펼쳐왔다.

지암 스님은 2년 임기 동안 소년원생들



지암 스님이 최성학 학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의 교육과 심성활동, 멘토링활동, 학교지원, 사회적응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특히 향후 2개월 간 어머니위원회와 함께 하는 합동생일잔치 및 다과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행사 △포스코 광양제철을 탐방하는 현장훈련 △효사랑 사회봉사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진각국사선양회” 설맞아 지역 불우이웃 도와

한부모가정 250세대에 떡국떡 500상자 전달

설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이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진각국사선양회’(대표 대현)는 2월 5일 전남 화순군을 찾아 설 명절에 사용할 떡국 떡 500상자를 전달했다. 광주 해원정사에서 후원한 떡국떡은 화순에 있는 한부모가정 250세대에 2kg씩 전달된다.

대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가족을 만나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힘든 명절을 맞이하는 이웃들이 많다”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진각국사 선양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마음담으 강조한 스님 가르침 새길 것”



2월 7일 선운사에서 열린 윤기 스님 24주기 추모제에서 스님들이 윤기 스님의 가르침 잇기를 서원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행장집.

### 선운사, 7일 윤기 스님 추모제 및 교구중회... 행장집 <독보건곤> 봉헌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2월 7일 근대 한국불교의 대각백인 성원당 윤기 스님의 24주기 추모제를 열고 스님의 행장집 <독보건곤(獨步乾坤)>을 봉헌했다.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내장사 주지 혜산 스님을 비롯한 윤기 스님 문도들과 선운사 본말사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봉헌된 행장집의 제목인 ‘독보건곤’(천지간에 혼자 걷노라)는 평소 스님이 자주 설하고 글로 남긴 글귀로 출가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말한다. 이 행장집에는 석전 영호 스님이 윤기 스님에게 보낸 엽서, 친필 원고, 불국사 강원 강주

시절의 사진집과 몇 점 남지 않은 윤기 스님의 묵적 등도 함께 실렸다.

또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박봉식 前서울대 총장, 송석구 前중국대 총장의 축사와 법철 스님이 저술한 윤기대각백 행장기, 대우 스님, 해남 스님 등 출가제자들과 황경석 前선진그룹 회장의 추모사, 윤기 스님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김재 금산중학교 제자들의 추모글이 함께 실렸다.

윤기문도회 문장인 혜산 스님은 간행사에서 “윤기 스님은 수행자는 마음의 명경에서 먼저가 가지 않도록 닦아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다”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한국불교발전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성원당 윤기 스님은 1898년 고창군 해리면에서 출생해 석전 영호 스님의 법제자이자 전강제자로 백양사, 불국사 강원 강주를 역임하는 등 후학의 교육과 호남 불교증흥에 이바지 했다.

한편 선운사는 같은날인 7일 지장보궁에서 교구중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중회에서는 중무보고 및 중무계획, 선운사 불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의결됐다. 중회에서는 교구우수사찰 시상식도 열려 포교우수사찰로 부안 개암사, 불사 우수사찰에 전등사, 중무행정 우수사찰에 만일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3월 7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실상사 작은학교

### 28일까지 신입생 모집

지리산 ‘실상사 작은학교’가 2월 28일까지 2015년 중등전형 신입생을 모집한다. 실상사 작은학교 교육과정은 대안학교 교육으로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철학, 한문, 과학 등 중학교 과정의 기초적인 지식 수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텃밭 가꾸기, 환경 가꾸기 등의 체험공부와 매 학기 5박6일간 진행되는 기능 익히기, 대안학교 탐방과 공동체 탐방 등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실상사 작은학교는 2월 8일 졸업식을 열고 중학교 과정 졸업생 16명,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4명을 배출했다. 1박 2일간 진행된 졸업식에서는 졸업전야 행사로 고교과정 1년차 학생들의 해외공동체 탐방 발표와 2년차 학생 4명의 자서전 발표가 진행됐다.

이튿날 졸업식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 부모님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작은학교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한 아이들이 자서전을 쓰도록 했다. 교과과정에서 새로운 시야를 넓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063)636-3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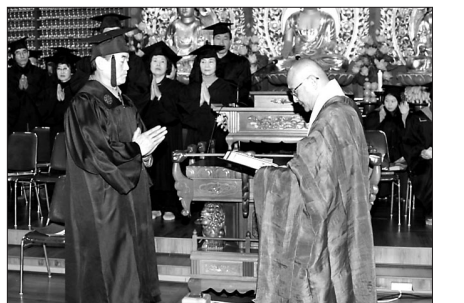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 전북 대표교육기관, 화엄불교대학 졸업식

전북지역 대표 신도교육기관 화엄불교대학(학장 성우, 금산사 주지)의 졸업식이 2월 8일 열렸다.

전북불교회관 4층 법당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화엄불교대학 26기 46명, 학원원 21기 53명의 학원이 졸업장을 수여받았다. 이들은 1년간 불교기초 교리강좌와 부처님 경전공부, 실천수행, 각종 봉사활동 등의 정규과정을 이수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학장 성우 스님을 비롯해 은재사 주지 지월 스님, 석초 스님 등 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졸업식에서는 김한수 불



자가 포교원장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이정선, 이승규 불자가 수상했다.

한편 지난 1989년 개교한 화엄불교대학은 26년간 2,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제의 신간**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 명당발복의 신비

★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 天造明堂을 구求하라!

★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 地造明堂을 구求하라!

★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 人造明堂을 구求하라!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 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제(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大小)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이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祕)한 비밀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